

홍콩 개최 “인터 스토프 아시아 에센셜 2011 봄”

전시회 리포트 <2/3>

중국 면화 평의회(中國 棉花 評議會)의 “카린 말스툼” 회장은 인터·스토프(Inter-stoff) 회기중(會期中)에 열린 강연회에서 면화시장의 환경변화를 “팔고 싶어도 이미 팔 수 있는 면은 다 떨어졌다.”,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면화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한 요인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회장은 면화공급 감소의 요인이 파키스탄이나 중국에서의 이상기상에 따른 흉작 외에도 면 농가가 가격이 많이 오른 옥수수나 대두로 생산 품목을 바꾼 것 등을 일례로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면화 공급이 감소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각국이 면화재배에 다시 주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아주 최근에는 브라질이 약 60% 정도 생산을 늘렸고, 아르헨티나는 45%, 호주에서는 두 배 이상 경작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수요가 확대된 요인으로는, 전 세계 면화의 65%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내수시장의 성장을 지적하였다. “면은 인기가 높은 소재로, 의류 뿐 아니라 타월, 침장 등에서도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면화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점이 더욱 심각하게 되어가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주 최근의 소비동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1개월 동안에, 주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동향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으며, 여러 점포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같은 가격 수준 중에서도 가장 값이 저렴한 것을 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비교해가며 구매하는 등 “현명한 소비자”가 한층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점차 원

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욱 더 어렵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사 가격이 크게 올라 어패럴이나 의류제조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각 기업마다 전략이 다르다.”는 코멘트로 본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으며, 면화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열린 금번 인터 스토프 전시회에서는 여느 해에는 없었던 테마의 세미나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